

전남 서부권

“예술향 가득한 목포로 오세요”

내일부터 국악·무용·음악경연·시낭송회 등 예술제

10월 한달동안 목포가 예술의 향기로 가득찬다. 목포시와 한국예총 목포지회(회장 임점호)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30여 개의 문화행사로 구성된 ‘목포 예술제’가 목포권역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예총 목포지부를 비롯한 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작가·연극·음악·연예·수석협회가 참여한 다양한 예술행사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는 6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목포예술인의 밤 예술문화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학생 바다사생

대회 입상작전 ▲미술협회 회원전 ▲제60회 사진작가회원전 ▲제11회 목포·마산 사진교류전 ▲제2회 목포·청주 사진교류전 ▲제32회 목포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입상작전 ▲수석협회 회원전이 잇따라 개최된다. 7일부터 15일까지 목포문화관에서 ‘회원 시화전’도 열린다. 또 ‘학생음악 경연대회’가 8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릴 계획이며, ‘목포문인협회 시낭송회’(목포문화재단)와 ‘음악협회 회원음악회’(문화예술회관 공연장)가 13일 펼쳐진다. 15일에는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관광목포 예술의 향기여행’과 ‘가을에

콘서트’가 열리며 같은 날 목포문화관에서는 ‘박화성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이밖에도 국악과 무용 등 다양한 공연행사가 선보인다. 16일에는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실버가요제’와 ‘평화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며, 21일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국악 경연대회’, 22일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용 경연대회’, 28일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학생음악회 우수입상자 음악회’가 마련된다. 특히 29일 오후 3시에는 갖바위 입암산 입구에서 ‘목포 8경 나무나루 콘서트’가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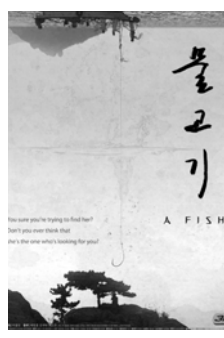
목포 문학평론가 김현 기리는 전시관 개관

한국문학 비평사에 한 획을 그은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을 기리는 전시관이 최근 목포에 문을 열었다. 전시관에는 육필 원고, 동료 문인과 주고받은 편지,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문구류, 안경, 책상, 컴퓨터 등 총 300여점이 전시된다. <목포시 제공>

진도 씨김굿 다룬 3D독립영화 ‘물고기’

부산국제영화제서 개봉

‘진도 씨김굿’(중요 무형문화재 제72호)을 소재로 한 3D 독립영화가 제16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진도군은 “진도 씨김굿을 소재로 진도군 지산면 보전, 소포, 안치앞바다 등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물고기’(감독 박홍민)가 부산 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25편-비전 부문 추천작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영화는 오는 7일 오후 7시·9일 오후 2시·10일 오전 11시 부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전체 제작비 1억여원 미만이 소요된 독립영화 ‘물고기’는 가출한 아내를 찾아 나선 교수와 그 처가 무당이 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흥신소 직원을 인도심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수려한 진도 자연풍광과 어울

려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매혹적이다는 평가다. 박홍민 감독은 “영화 ‘물고기’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평생 한걸음 걷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존경심의 표현이다”며 “지난 2008년부터 수십 차례 진도를 방문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토속적인 무형 문화재에 대한 경외감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씨김굿’은 망자가 이승에 남긴 한을 풀어주는 곳으로, 춤이나 음악에서 자료가치가 커 지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공공기관 빠져나간 목포 원도심 활성화 박차

재팬·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개정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목포시의회 정영수 의원 발의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금액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이 특화거리(차 없는 거리) 일대에만 집중 지원됐으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도화가 심화된 구 법원·검찰청 주변까지 확대되고, 재팬·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또 교육·문화·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익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시 수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에 재개발 지정구역인 상동, 하당동, 이도동 주거지역, 삼항동을 비롯해 만호동 일부와 유달동, 용당1동, 용해동 일부 지역이 추가됐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빈 상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물 수선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도 상향조정됐다. 구체적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이 원도심 이전엔 시설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상가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할 경우 50%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한 사업자가 건물 수선을 할 경우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등 4개항이 신설됐다. 또 재팬·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매월 15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료의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원하되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각종 공공요금도 매월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축제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로 늘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매년 6억원의 원도심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완도 음해세력 뿌리뽑는다

공무원노조, 유언비어 등 수집센터 운영 형사고발

완도지역 사회단체에 이어 완도군 공무원들이 군정 음해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실·과·소장, 읍·면장 등은 4일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부 군정 음해세력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 진정·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의 정보 공개청구 등으로 군정을 헐뜯고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정 음해사태 수집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완도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완사모’(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를 구성하고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세력 척결을 위해 서명운동과 자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완사모는 박삼재 완도군의회의장을 비롯해 군의원과 전국 완도군향우회 연합회장 등 경향각지의 향우들과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등 180여명으로 구성됐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청정수산물 나지·장어 무료시식 하세요

함평군은 지역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함평읍 엑스포공원 환송주차장에서 나지와 장어 400kg을 일반인들이 무료 시식하는 행사를 갖는다. 군은 나지 300kg과 장어 100kg을 일반인들이 무료로 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선착순 100명에게 장어

500g씩을 나눠줄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의 긴 해안선과 넓은 갯벌,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게르마늄을 듬뿍 함유한 나지와 소라, 전어, 송어, 장어, 바지락 등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화기자 hwang@

완도 고금초등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완도 고금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완도 고금초등학교(교장 박종태)는 지난 2일 김영록 국회의원과 김종식 완도군수, 완도교육지원청 장진숙 교육장,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순일 공동대표, 기관단체장, 졸업생, 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00주년 기념탑 제작

식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예발표회, 학교 영상소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개교 100주년 행사에 이어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편 완도 고금초등학교는 지난 1911년 보통 사립학교로 문을 연 후 그동안 1만13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12개 학급에 183명이 재학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 북

김제시 세계 축제 도시 됐다

IFEA 총회서 선정

김제시가 ‘세계 축제도시’로 선정됐다. 김제시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에서 열린 ‘제56회 세계축제협회(IFEA) 총회’에서 2011년 세계축제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방송 영상물과 홍보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은·동상을 받았다. 세계축제협회는 축제가 열리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도시 개요, 축제 경쟁력, 정부와 민간지원, 파급효과를 평가해 권역·인구별 최우수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김제시는 인구 10만 이하의 아시아 도시중 축제 성공과 성장을 이끌어낸 지도력, 시민의 통합된 노력, 지역 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축제를 통해 지난해 한 해에만 관광객 100만여명 유치와 연간 565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얻어 농업과 축제, 마케팅을 잘 접목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수상과 함께 ‘세계축제도시’ 깃발을 받았으며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 시장은 “세계축제도시 선정은 지평선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전통 농경·문화유산, 자연환경, 특산물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더 육성해 세계적인 환경·문화체험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덕유산 가을산행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무주군 설천면 국립공원 덕유산일대에는 1만여명의 등산객과 탐방객이 몰려 초가을의 정취를 즐겼다. 덕유산 단풍은 이달 중순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주세계소리축제 ‘흥행 성공’

좌석 점유율 86%... 소리프론티어 대상에 ‘불세출’

판소리 대중화 등 운영 무난... 주차·홍보물은 부족

전 세계 소리와 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닷새간 전주 시내를 ‘소리와 몸짓의 향연’으로 수놓았던 제11회 전주세계소리축제가 4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판소리 대중화와 공연의 다양화 등 프로그램에서 내실을 꾀하고 축제 운영 등 전반적인 면에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의 공연 평균 좌석점유율은 85.7%로 지난해 76.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좌석점유율 100% 이상 공연은 38개 공연 가운데 15개로 지난해 4개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 소리축제가 일반관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전통 판소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명창과 산조 명인, 명부, 명고들도 대거 참여해 소리축제의 뿌리를 든든히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리프론티어(9개팀), 소리콘서트 오후(5개팀), 판소리 다섯바탕(김경호, 장문희 명창 등)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젊은 국악인의 창작의지와 실험성을 확인하고 현재 국악음악의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막공연인 ‘이리 오너라 up go 놀자’, 폐막공연 ‘콘서트 춘향전’, 김형석 with friends, 김형석 마스터클래스 등 전통에 대중 장르를 결합한 공

연이 매진되는 등 이번 축제가 대중과의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축제의 주요공간인 전주 한옥마을의 불편한 주차 환경과 영문 홍보물 부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한옥마을 티켓부스가 해당 공연장에서만 예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관객들의 불만을 사는 등 발권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편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한국적 월드뮤직을 찾기 위해 진행한 경영 프로그램인 ‘소리 프론티어’ 대상에 ‘불세출’이 선정됐다. 불세출은 7명의 음악가로 구성된 공연단으로 국악기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한국적 월드뮤직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권익위 완주·임실·군산 찾아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ACRC)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인솔하는 ‘이동신문고’가 5일부터 7일까지 전북 도내 3개 시·군을 찾아가는다. 5일에는 완주군, 6일과 7일에는 각각 임실군과 군산시에서 ‘이동신문고’ 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행정·문

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10명이 참여한다. 남원, 진안, 익산, 김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지역을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교육청, 유치원·초등·특수교사 478명 모집

전북도교육청은 4일 2012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총 모집인원은 ▲초등학교 교사 460명(일반 432명·장애 28명) ▲유치원 교사 6명 ▲특수교사 12명 등 총 478명이다. 초등학

교 교사 모집정원의 경우 지난해 276명에 비해 184명이 늘었다. 원서는 초등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1차 시험은 11월 12일이며 2차, 3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3일에 발표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7일부터 새만금 비응향 까치날 페스티벌

‘새만금 비응향 까치날 페스티벌’이 7일부터 일주일간 3일간 군산 비응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까치날’이란 석양을 받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뜻거리는 울긋불긋한 노을을 의미한다. ‘가족과 함께, 나조와 함께’라

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8일 열리는 새만금 예초, 새만금 걷기대회와 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판타스틱가 무체’와 연계해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근식기자 nogusu@

정음 음악보존회 전국 농악경연대회 대상

정음 음악보존회(회장 유지화)가 지난 1~2일 열린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을 차지했다. 정음 음악보존회는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예선을 통과한 후 부산, 대

구립과 실력을 겨룬 본선에서 탁월한 예술성과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음 음악보존회는 2010년 바우덕이 대통령상에 이어 지난 6월 전주 대상을 전국대회 차상(2위)을 차지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딸기·멜론·파프리카 3대명품 과제

남원시 10억 투입 생산 단지 육성

남원시가 딸기·멜론·파프리카 등 3대 명품과제 생산단지 육성에 나선다. 남원시는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의 ‘4차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 중 과제분야에 1등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3대 과제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추진 1차년도인 2012년에는 ▲딸기 고설재배 ▲파프리카·멜론 복합환경에서 시스템구축 ▲에닝시스템 확충 ▲에너지절감 시설 등 명품과제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지 교육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1차 지역농업특성

화 사업에서도 수출농업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멜론, 포도, 배, 화훼 등 6개 품목 248농가에 무인방제 시스템, 에너지 절감시설, 수출배 전용 봉지 등 품질향상과 생력화(省力化) 시설사업 등을 실시해 수출증대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대 과제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 APC와 연계해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와 소비자가 다가오는 명품과제 생산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